



## 폴란드

# 정부와 중앙은행 사이에 정책방향에 대한 논쟁 재연

지난 2월 초 콜로드코(G. Kolodko) 폴란드 재무장관은 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폴란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거세게 비난함으로써 지난 수개월 동안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던 정부와 중앙은행의 관계가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콜로드코, 3% 포인트 정도의 과감한  
금리인하 여력 있다고 주장**

콜로드코는 중앙은행이 금리수준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즐로티(Zloty)貨 가치가 과도하게 높아져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앙은행은 좀 더 적극적인 금리인하에 나서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기준금리는 6.5%이나 금년 1월중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5%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6%를 유지하고 있는 실질기준금리는 국제금리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이는 즐로티貨의 강세로 나타나 폴란드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잠식한다는 것이 콜로드코의 주장이었다.

또한, 콜로드코는 현재 상태에서 아무 부작용 없이 3% 포인트 정도의 금리인하 여력이 충분하지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위원들이 이런 과감한 금리 인하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중앙은행을 자극하고 나섰다.

**지난 수년간 금리인하 문제로 정부와  
중앙은행간 갈등 지속돼**

중앙은행의 고금리 정책이 EU의 경기침체와 맞물려 폴란드 경제는 2001년부터 극심한 경기침체에 시달려 왔으며, 경기부양을 원하는 정부는 중앙은행에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중앙은행은 급속히 악화된 정부재정 상황을 들어 통화정책 완화보다는 재정긴축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중앙은행도 지난 2년 동안 19%에 이르렀던 기준금리를 6% 대로 낮출 만큼 금리를 계속 인하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인플레이 압력이 급격

히 낮아진 데 비해 금리인하에 대한 중앙은행의 태도가 지나치게 신중하며, 특히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국제금리 수준이 떨어진 것까지 감안한다면 폴란드의 실질금리 수준은 아직도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양측간에 불신의 벽이 높아졌으며, 급기야 지난해 5월 집권여당 내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한하려는 구체적인 입법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벨카(M. Belka) 前재무장관의 돌연한 사임으로 재무장관에 임명된 콜로드코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있었으나, 재정적자 축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콜로드코의 입장 표명과 인플레이 압력 완화로 중앙은행도 보다 적극적인 금리인하에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콜로드코의 딜레마**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콜로드코의 중앙은행에 대한 비난은 양자의 우호관계가 끝나고 집권 민주좌파연합(SLD)이 다시 중앙은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폴란드가 안고 있는 경제현안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없는 콜로드코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중앙은행은 정부가 바라는 대로 과감한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크리치와 즈르티貨 강세 억제를 위한 콜로드코의 정책수단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그렇다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한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SLD의 일부 주요 인사들과 집권연정 파트너인 폴란드 농민당(PSL)을 비롯하여 야당들은 중앙은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으나, 이는 폴란드 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크게 저해할 뿐이다. 또한, 콜로드코 자신이 바라는 유로貨의 조기 도입을 위해서도 중앙은행의 독립성 유지는 필수적 요건이다.

마찬가지로 재정적자 규모의 축소도 콜로드코의 의지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20%에 육박하는 실업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은 고용과 기초생활수준 악화를 수용할 수 없어, 재정수지 적자의 축소 시도도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콜로드코의 의도**

이번 콜로드코의 중앙은행에 대한 비난은 우선 정책당국간 갈등을 노출시켜 즐로티貨의 약세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되

〈표〉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2000	2001	2002e	2003f	2004f
경제성장률	4.0	1.0	1.3	2.7	3.8
재정수지 / GDP	-2.2	-4.3	-5.1	-4.7	-4.6
소비자물가상승률	10.1	5.5	1.9	1.5	2.2
실업률	14.0	16.2	17.8	18.4	17.9

자료: EIU, Viewswire, Jan. 2003.

고 있다. 금년도 경제성장 목표를 3.5%로 다소 낙관적으로 설정한 콜로드코는 이 목표의 달성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현재의 경기부진의 책임을 중앙은행에 돌리는 효과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콜로드코가 이런 행동을 취한 데는, 2004년으로 예정된 폴란드의 EU 가입 이후 유로貨를 도입할 때 즐로티貨의 전환환율을 가능한 한 낮추려는 의도가 강하게 깔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sup>1)</sup> 현재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동구권 EU 가입 후보국들의 통화가 유로貨 도입 시점까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콜로드코는 EU 가입 후 유로貨 도입에 앞서 최소 2년간 과도기적으로 유지되는 환율체제(exchange rate mechanism: ERM)에 편입되기 전에 가능하면 적절한 수준까지 즐로티貨 가치가 하락하기를 바라고 있다.<sup>2)</sup>

독립적인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거부로 정부는 즐로티貨 가치 변화를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2004년 초에 금리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 MPC)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즉, 10명의 위원 중 발셀로비츠(L. Balcerowicz) 중앙은행 총재를 제외한 9명 전원이 교체될 예정이다. 3명은 SLD 출신의 크바스니에프스키(A. Kwasniewski)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6명은 상·하원이 3명씩 지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정부가 원하는 위원들로 MPC 구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현 MPC 체제에서 정부가 바라는 대로 금리정책이 크게 완화될 가능성은 낮으나, 콜로드코와 정부 관계자들은 경직적인 ERM에 들어가기 전인 2004년 1/4분기 중에는 원활한 금리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중앙은행을 비난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긴장이 다시 한 번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고 재 호】

1) 사실 최근 유로貨가 미 달러貨나 다른 통화들에 대해 강세를 보임에 따라 폴란드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문제는 상당히 완화되고 있음.  
2) 콜로드코는 재무장관으로 입각하기 전에도 유로貨에 대한 즐로티貨의 대폭적인 평가 절하를 주장한 바 있음.